

“인재 육성·인프라 구축… 발전하는 광주배구 만들 터”



체육가매당단체를 찾아서 김석주 광주배구협회 회장

15여년간 엘리트 선수로 활약…광주서 후진 양성
초등팀 활성화 역점…연계 육성 시스템 강화 과제
각종 전국대회 등 추진…남자 프로팀 유치에 집중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종목 활성화에 집중, 발전하는 광주 배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주배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석주 제4대 광주배구협회 회장은 “광주는 최근 조선대와 광주여대팀이 전국대회 동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광주배구협회 또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유소년 배구를 지원하는 등 일선팀들과 협회가 하나 돼 종목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발로 뛰며 지역 배구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땀속까지 배구인인 김 회장은 지난 2025년 1월 17일 실시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 적격 심사를 거쳐 제4대 통합 회장직에 올랐다.

그가 처음 배구를 접하게 된 건 광주서중학교 2학년 때다. 당시 남들보다 큰 키를 가졌던 그는 주변에서 배구를 해보라는 추천을 받았다. 재능 또한 갖췄던 그는 흔히 ‘배구 좀 한다’는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고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전국체전 전남 대표로 참가했고, 30대 초반까지 선수생활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 그는 전국 유일 실업팀이었던 한전 배구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실업팀이 아닌 지도자의 길이였다. 선수 생활 이후 대학에서 지도자와 교수(조선대·목포대)로 재임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또 전남배구협회에서 평이사,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았다. 이외에 그랑프리 국제 배구대회 한국팀 단장(1998년)과 한

국대학 배구연맹 부회장,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한국대학배구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70여년 동안 배구와 함께하며 광주·전남 및 국내 배구 발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40회 전남도 체육부문 문화상(1996년), 대한체육회 공로상(2001년), 대한민국 훈장인 목련장(1995년)과 황조근검훈장(2004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 배구계의 원로인 그가 배구협회 회장직에 도전하게 된 것 또한 광주 배구의 발전을 위해서다. 갈수록 유소년 배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지역 배구 인프라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직접 발로 뛰며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회장은 당선 이후 “배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배구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광주배구 위상 제고와 광주체육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배구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배구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재 연계 육성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초등학교 남녀 각 1개, 중학교 남녀 각 1개, 고등학교 남녀 각 1개, 대학교 3개, 남자 실업팀 1개가 있다.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 틀은 마련돼 있지만, 이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는 중이다.

실제 여자 초등학교 팀인 치평초의 경우 선수가 부족해 올해 소년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학교 내 학생 수 자체가 적어 선수 수급조차 불가능한



김석주 광주배구협회 회장이 “광주배구 위상 제고와 광주체육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배구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배구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상황이다. 이에 김 회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배구부 유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가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다.

김 회장은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광주 지원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정성금

실력을 지닌 선수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다. 이런 현상은 대학교 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김 회장은 “선수가 여러 대학에 붙는다면 기왕이면 수도권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훈련 환경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서 광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는 조선대·호남대·광주여대 등 3곳

에 그치지만, 수도권에는 인하대·한양대·경기대·홍익대 등 팀이 다양하다”면서 “전통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도 여유롭게 받는다. 선수층이 두껍고 지방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뿌리가 단단할수록 수준이 올라가는 법이다.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배구부 육성과 후진 양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점언했다.

그는 전국대회 개최에도 몰두하고 있다. 대회가 광주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역에서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남녀프로팀 대회인 KOVO컵의 경우 전국 각 시도에서 신청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외에도 종교대연맹대회, 종별배구선수권 등 여러 대회를 유치하려는 곳이 많다”면서 “광주에서도 이런 대회를 열어야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된다. 경제효과는 물론 지역사회 홍보 역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재임 기간 광주배구의 숙원인 남자 프로배구팀 유치를 이뤘내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김 회장은 “지역에 여자 프로배구팀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있지만 남자 배구팀은 전무하다”며 “한국전력력 본사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한국전력 남자배구단이 광주로 연고지를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다른 팀들과 거리가 멀어 선수단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잘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배구팀 유치가 지역 배구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광주 배구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당장 회장 스스로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한국 배구가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탄탄한 연계 고리 육성과 후진양성을 통해 광주에서 배구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발전하는 광주배구협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추석 명절 맞아 팬 소통 행사 진행

3~5일 ‘K리그-주토피아 앙코르 팝업스토어’ 개최



프로축구 광주FC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팬들과 소통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2시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중앙광장에서 이영호 감독과 선수단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 및 스킨십 행사를 진행한다.

사인회가 열리는 장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주토피아 앙코르 팝업스토어(이하 앙코르 팝업스토어)’ 현장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린 뒤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광주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운영된다.

광주는 추석을 맞아 팬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선수단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먼저 행사 첫날인 3일 오후 2시부터 ‘효버지’ 이영호 감독을 비롯해 ‘베데랑’ 안영규, 주세종 선수가 사인회를 진행해 팬들과 스킨십에 나선다.

이어 대구전 홈경기 당일인 4일에는 선수단 사인회를 포함해 광주FC 홍보대사 조빈이 팝업스

토어를 방문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조빈 홍보대사는 추석 연휴에 맞춰 구단 서포터즈 ‘빛고을’과 함께 새 응원가 녹음을 진행하며 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팝업스토어에서는 K리그와 주토피아 테마 상품(머플러·진액·인형 키링 등)이 판매되며, 주토피아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된다. 이외에 팝업스토어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공인구, 플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큰 호응을 얻었던 팝업스토어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팬들이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앙코르 팝업스토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서구청 펜싱, 전국체전 광주선수단에 ‘첫 금’ 안겼다

강영미·최은숙·김수빈·정지윤
에페 단체전 결승서 부산에 ‘승’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광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광주시체육회는 30일 사전경기로 열린 펜싱 종목에서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서구청 펜싱팀이 부산(부산시청)을 만나 39-33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 광주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다.

서구청 펜싱팀은 앞서 1회전과 2회전에서 경남(경남대)과 전북(호원대)을 상대로 승리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전남(전남도청)을 만나 39-35로 이기며 결승에 올랐다. 이어 결승에서 부산마저 꺾고 정상에 올랐다.

고등부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남고 18세이하부 에페 단체전에서 광주체고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전남공고는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여 일반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호남대학교가,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광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30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펜싱 종목에서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에 39-33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주 서구청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는 강영미(광주 서구청)는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이 올림픽만큼 큰 의미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기쁘다”며 “고등안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 동료, 지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펜싱선수단의 연이은 승전보를 기다리며 임직원들과 함께 응원했다”면서 “특히 강영미 선수의 은퇴 경기에서 기다리던 광주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와 광주 시민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동계체전 실무자 회의

경기력 분석·종목별 훈련 계획 등 전력 보강 집중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9일 ‘제23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대비 5개 종목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대회 경기력 분석, 참가 요강 안내, 종목별 훈련계획 및 응품 수요조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종목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동계체전 전국 종합 4위를 달성했던 전남은 2026년 4위 탈환을 위한 하반기 집중훈련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청각 결빙 신규 선수를 영입하여 부족한 라인업을 보강했다. 전남의 강세 종목

인 휠체어 컬링 단체전과 2인조 경기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확보하고, 아이스하키·스키·빙상 종목은 지난 대회의 성과를 유지한다면 종합 4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동계종목 전용 체육시설이 부족해 강원도 컬링장, 이전 선수촌 컬링장, 의정부컬링장,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등 타 지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상당한 훈련비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